

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, 2027년 매립지등 (석문지구) 간척농지 임대 공고

✎ 서세진 기자 | ☎ 승인 2026.03.30 14:34



[충남일보 서세진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'2027년 매립지등(석문지구) 간척농지에 대한 임대 공고'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임대 대상은 총 37구획, 약 611만 중 채종포 재배단지(1구획, 약 21.8만) 를 제외한 36구획, 약 588만 규모로 피해농업법인·일반농업법인·수출용 쌀 재배단지·당진시 등록 조사료경영체를 대상으로 공급된다. 특히 피해농업법인에 20구획, 일반농업법인에 14구획이 배정되는 등 지역 농업 회복과 안정적 영농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.

신청은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당진지사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, 법인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. 신청 자격은 계획 공고일(2026.02.06.) 이전 설립된 농업법인으로, 출자금 및 법인 소재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 임대 대상지에 대한 세부사항(필지내역, 구획도(도면) 등)은 당진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이번 공고는 2027년 신규 임대차 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절차로, 최종 선정된 법인은 2027년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. 임대차 대상자 선정은 자격 심사를 거쳐 경쟁입찰(공개 추첨) 방식으로 진행된다.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복 신청 및 자격 제한 기준도 엄격히 적용된다.

공사 관계자는 “금회 임대를 통해 간척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다각적 이용을 높이고,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

서세진 기자 4096900@naver.com